

3) 질소소비량 증가에 따라서 단위면적당 영화수는 증가하였으나 등숙비율은 이에 따른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4) 질소소비량에 따라 출수기의 총건물중 및 엽면적지수는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이들과 현미수량간에는 정의 상관을 보였다

3. 지역별 일조/온도의 차이가 수도의 생육 및 수량 구성 요소에 미치는 영향

(충남 농대) 안수봉

(고려인삼연구소) 이종철*

우리나라의 지역별 기상(일조/온도)을 구분 정리하여 지역별 차이를 검토하였으며, 일조/온도 지수가 수도생육 및 수량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71-'77의 수도 작황진단 시험성적을 이용하여 통일형 품종과 일본형 품종을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4. 밀에 있어서 출수기 조만이 등숙에 미치는 품종간 차이

(맥류연구소) 안완식, 조장환, 홍병희

밀에 있어서 출수기의 조만이 대소립 밀 품종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여 밀 등숙생리를 구명하고 밀 조숙품종 육성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등숙속도는 대소립 관계없이 온도와 정의상관을 보였다.
2. 밀의 등숙기간에 있어서 소립종은 대립종에 비하여 등숙기간은 34일정도로 비슷하였으나 적산온도로 보아 대립종이 높은 경향으로 조숙품종의 육성을 위하여는 대립종보다 소립종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었음.

5. 년차 및 지역간의 파종기 차이가 출수후 입중 증가에 미치는 영향

(맥류연구소) 하용응*, 유용환, 연구부, 배성호

1. 출수후 입중의 증가현상은 년차와 지역간에 차이가 인정되었는데 이는 등숙기간 동안의 기상조건 즉 온도가 크게 영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2. 출수후 25일의 천립중은 년차나 지역에 관계없이 북부>중부>남부의 순으로 무거웠으나 최종 입중은 년차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파종기에서는 조기나 만기파종에서 보다 적기 파종에서 천립중이 대체로 무거웠다.
3. 최고 입중에 달하는 기간 즉 생리적 성숙기는 년차에 따라 북부에서는 출수후 40±5일, 중부 43±5일 그리고 남부에서는 45±5일로 남부와 북부에서의 차이는 대체로 5일이었다.